

[종합]

뉴스위크, 컬럼비아대 논문 보도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고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두뇌를 좋게 해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8일 보도했다.

뉴스위크 인터넷은 3월26일자 최신호에서 컬럼비아대 메디컬센터의 신경학자인 스킷 스몰 박사 등이 지난 주 미 국립과학아카데미에 발표한 논문에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에어로빅 운동을 한 결과 사람의 두뇌의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90년대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사람의 신경

“운동하면 똑똑해진다”

3개월 에어로빅... 두뇌 새 신경세포 생성 확인

“신경세포 나이들면 죽는다” 기존 생각 뒤집어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신경세포의 손실은 영구적이며 인간의 뇌는 죽은 신경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스몰 박사의 연구결과로 알츠하

이머(치매) 예방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또 일리노이대학의 정신학자인 아서 크레이머 박사는 뇌활용기술을 통해 운동을 하면 기억력, 사고력 등의 고등한 정신행동을 관장

하는 전두엽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앞서 60~70대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수십건의 연구에서도 걷기운동이나 에어로빅을 꾸준히 한 결과 질문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대답하는 등 정신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빈곤율도 지역간 격차

광주·전남 타지역보다 개선 속도 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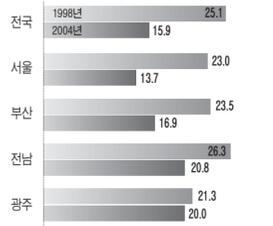
외환위기(1997년) 이후 전국적으로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산업경제연구 제20권(1호)에 실린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1998년과 2004년 전국 15개(제주 제외) 시·도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논문은 비농촌지역 16세 이상의 가구수가 있는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에 의해 얻어진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를 기초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 가구로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송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전국의 빈곤자 수는 1998년 1천174만명에서 2004년 745만명으로 줄었고, 빈곤율은 25.1%에서 15.9%로 9.2%p 낮아

■ 지역별 빈곤율 증감 추이 (단위: %)



졌다. 같은 기간 동안 빈곤율 증감 추이를 보면 충남이 23.5%p 떨어졌고, 충북이 16.8%p 낮아지는 등 대부분의 시도가 10% 가량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광주는 1.3%p만 떨어져 광역시 중 개선도가 가장 약했으며, 전남도 5.5%p의 미미한 감소세에 그쳐 빈곤층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국산 밥쌀 첫 공매 99% 낙찰

20kg에 3만원

중국산 밥쌀을 수입할 때 올해 첫 공매에서 99% 이상 팔려 나갔다.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9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중국산 밥쌀 3등급 800t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99.4%, 795t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평균 낙찰가격은 20kg당 2만9천760원으로, 이는 지난해 중국산 3등급 밥쌀의 평균 낙찰가격 2만2천600원보다 31%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산 밥쌀은 5월 3일의 첫 공매에서 한 톨도 팔리지 못했고, 3개월 뒤인 7월에야 1만3천톤의 수입물량이 소진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입된 밥쌀은 이날 공매에서 공개된 800t을 포함, 중국산 3천t이 전부다. 이날 유찰된 5t과 나머지 물량의 공매일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검토해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소시장점근(MMA)’ 물량으로서 의무적으로 ▲중국산 2만3천15t ▲미국산 1만414t ▲태국산 1천t 등 모두 3만4천429t의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

당초 첫 공매에 미국쌀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미국내 가공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미국쌀 반입은 5월 말이나 6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기기자 jitee@kwangju.co.kr



19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서 오달 살라(오른쪽 두번째) OECD 공공 관리지역개발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OECD “한국 대학 교육시스템 경쟁력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OECD 평균의 약 60% 정도밖에 안되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과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고서, 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및 정원 관련 규제에 대해 “학생 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공립대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온김에 이거나 당에 전해줘!

전경련 차기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추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차기 회장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사진)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김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날 “한미, 한일 경제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를 잘 이끄는 등 세계 경제정보에 능통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조 회장을 20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회장에 제의했다”며 회장단이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 회장단은 강 회장, 이준용 대림회장, 현재형 동양 회장, 박용원 두산회장, 박영우 이건설업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건호 상근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차기 회장 추대를 논의했다.

그러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조석래 회장은 지난주말 출국해 일본을 방문중이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20일 오전 11시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정무부시장 김윤석씨



광주시는 19일 신임 정무부시장에 기획예산처 김윤석(54·사진) 재정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부시장은 8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20여년 이상 전방바름은 기쁨, 예산, 금융 전문가다.

해남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으며 기획예산처 재정감사기획관, 홍보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기금과장 등을 거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울시 여수박람회 유치 공식 후원

서울시는 범국가적 사업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수시와 협정을 맺고 여수시의 박람회 유치활동을 공식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6일 여수시청을 방문, 오현섭 여수시장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추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 및 광고에 서울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각종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가정폭력 술이 원수?

폭력 행사 원인중 1위

재혼부부 폭력도 증가

음주가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이 사회적으로 크게 늘며 재혼부부의 폭력도 함께 증가하고, 결혼 생활 20~30년의 중년 이상 부부의 폭력 발생 빈도도 눈에 띄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상담 위탁된 가정폭력 가운데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94.8%(9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행사 원인으로는 음주가 30.8%(51건)로 최다를 차지한 가운데 성격차이(21.7%, 36건), 경제갈등(17.5%, 29건), 부부간 불신(16.3%, 27건)이 뒤를 이었다. (중복 응답 가능) 작년에도 6.7%(5건)에 그쳤던 음주는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던 성격차이를 처음으로 제쳐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분실

자기앞수표 No. 바기54658438 금액 금10,000,000원 발행일 2006년 10월 13일 발행처 국민은행 왕십리지점 최후소지인 송연숙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1. 양도대상: 산내리지구 11번지 2002-01-13 2. 양도예정일: 2007년 4월 19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1) 기 간: 2007년 4월 18일까지 (2) 제출처: 양도처 또는 양수처 4. 양수자격: 산: 송일기업주식회사 미 프 자: 전희성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봉선동 946-107동 210호 전래번호: 062-389-9918 5. 양수처: 산: 주식회사 비엔비엔인업 미 프 자: 최준우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봉선동 631-18 4층 전래번호: 062-387-2280 2007년 3월 19일 송일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희성

공시 최고 사 건 2007기공17 신칭인 박정자 전남 원도농 노화읍 방사리 82 아래 개제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회고기일인 2007. 6. 25.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실효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원 이를 제출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신고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자기앞수표 변 호: 500991-16-00833603-4 500991-16-00833606-7 금 액: 금1,000,000원 발 행 일: 2007년 2월 5일 발 행 처: 노회우제과 2007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윤 정

산행안내... 3월 21일(수) ▲기고리산악회 제주도 원정단 1박2일 산행 3월21일(수) 07시 광주역앞 출발 T.017-608-2800, 011-601-8238 ▲청곡산악회 전국 전야전 경기대회 3월 21일(수) 08시 광주역앞출발 011-616-5917 ▲이대리산악회 경순 송정산(시상제) 3월21일(수) 07시30분 새마을아파트 앞 출발, 근 여 회원은 경순출발 T.011-649-4576 3월 22일(목) ▲광곡산악회 하동 사목봉·대인산 양재 산행 3월 22일(목) 08시 새마을아파트 앞 출발 011-944-2229 ▲광주한국산악회 거창 내리봉 수프산 3월 22일(목) 08시 연수체육관앞출발 장우현회 초 여학박원 T.011-615-2279 3월 24일(토) ▲광주도요산악회 의정부 수리산-불만산 3월 24일(토) 06시 광주역앞출발 011-638-4287, 011-634-2946 ▲광주거북이산악회 호산, 호남, 가산도 1박2일 3월 24일(토) 06시 430분 새마을아파트 앞 출발 Mt.7766, 7767, 7768, 7769 T.017-602-0077, 011-622-4323 ▲나사모산악회 관동 개국도 제대실명자 산행 3월 24일(토) 06시 45분 연수체육관(광주역, 문예회관중우) 출발 http://nasa.com/naasaweb T.162-266-7233, 011-621-7201 ▲광주원산악회 경복 절경: 삼인봉 1박2일 3월 24일(토) 03시30분 연수체육관앞출발, 문예회관중우출발, 8시 다음카페:광주원산악회 T.011-623-3617, 011-610-7675 3월 25일(일) ▲광주산악회 광복 절경 원정단 3월 25일(일) 07시30분 연수체육관앞출발 중우출발 T.011-649-3612, 365-3612 ▲광주북대미산악회 호남 체대생 5월 25일(일) 07시30분 불매아드스리 문예회관중우출발 8시 011-250000 T.062-384-1811, 011-648-3747

태진아 4월 12, 13일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정통 성인나이트만을 고집하는 광주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